

최수만님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블루팬�트의 대표이사 안찬수입니다.

짧으나마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대표의 관점에서 저희 회사에 재직하였던 최수만님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글이 최수만님을 평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최수만님이 저희 블루팬�트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CTO로부터 열의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할 수는 없으나,

월급을 준 사장의 입장에서 최수만님은,

본인 맡은 역할을 다하며 조직에 잘 융화된 월급이 아깝지 않은 직원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최수만님에게 감동했던 점은,

조직 (작은 회사의 비전은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입니다만) 에 대한 깊은 애착감과

본인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개발자 특유의 성향대로, 표현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으나 동료에 대한 배려가 뛰어나고

약속된 일은 해내는 모든 구성원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동료였습니다.

저의 능력 부족으로 많은 좋은 분들과 계속 함께 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분인 최수만님에 대해 결론지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든 능력이 된다면 다시 모시고 싶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수만님이 어떤 조직이라도 그 역할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실 분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주) 블루팬넫 대표이사 안찬수 올림

